

## 슈렘스(Schrems) 판결: 세이프 하버 정책의 종료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Lisa Mays, Scott Maberry

마치 바늘을 풍선에 갖다 대듯, 슈렘스 판결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지평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모두이다 (소비자, 기업, 직원 등). 그렇다면,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유럽 연합국과 미국 모두에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혹은 유럽 기업이지만 업무를 미국에 외주를 주었거나 (이 경우, 당신의 클라우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보내는 모든 기업이다.

### <슈렘스 對 정보 보호 위원> 사건에서 유럽 재판소의 판결

#### 막시밀리언 슈렘스(Maximillian Schrems)

슈렘스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당신은 슈렘스가 누구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법 분야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변화 뒤에는 누가 있는가? 막시밀리언 슈렘스(Maximillian Schrems)는 오스트리아인 법학도로서(동기부여가 된 법학도는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비엔나 대학에서 법학박사과정을 마치는 중이다.

또한, 그가 일부 실리콘밸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슈렘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California)에서 한 학기 유학을 하는 동안 프라이버시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온라인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우려한 슈렘스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유럽 본사를 상대로 23건의 소장장을 제출하였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에 의해 22건의 고소들은 각하되었지만, 결국 23번째 소장은 유럽 재판소로 이관되어 ‘슈렘스 판결’을 이끌어냈다.

#### 슈렘스 판결

2015년 10월 6일, 유럽재판소는 15년간 효력이 유지되어 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미국 세이프 하버 판결”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슈렘스 판결을 내렸다. 이전의 세이프 하버 판결이란 미국 기업들에게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유럽재판소는 슈렘스 판결에서 미국법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미국 세이프 하버의 보장 조약은 파기되었다.[1]

## 상거래에서 슈렘스 판결의 효과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기업에서 데이터의 저장, 전송 및 사용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과 더불어 미국에도 소재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들, 미국에 일부 업무를 외주한 유럽 기업,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기업은 사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모든 개인정보가 미국의 관할구역 밖에서 관리되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들은 더 이상 세이프 하버 자체인증에 의존할 수 없다. 각 기업들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만족하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슈렘스 판결 이후 세계의 해결책

슈렘스 판결에 따른 세이프 하버 무효화는 계약서 조항의 이행, 데이터 암호화를 추가하는 방법 및 데이터 센터를 유럽연합으로 옮기는 방법 등의 다양한 보완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5년 11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에게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표준계약약관 및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정보보호사규(BCR)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자료가 전송 가능한지 나열하여 제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여러 실현 가능한 해법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규제기관들이 슈렘스 판결 이후 더 많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2]

## 해외부패방지법 (FCPA)

나아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준수 및 조사 영역에서 슈렘스 판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크게 FCPA 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반(反)뇌물 규정으로, 이는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기록 관리 및 내부 통제 규정으로, 정확한 회계 업무 및 적절한 내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FCPA의 관할권은 매우 광범위하며 미국인 또는 외국인에 의한 주간 통상 (interstate commerce)의 관련 여부에 달려있다. 광범위한 FCPA의 적용 범위 및 최근의 적극적인 법집행의 결과로, 기업은 회사 구성원들이 부주의로 인하여 FCPA를 위반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FCPA 준법감시 및 조사에 대한 슈렘스 사건의 영향

슈렘스 사건은 FCPA 준법감시 계획 및 FCPA 조사에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보통의 준법 감시 핫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내부 조사에서는 분석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 및 이메일 자료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

슈렘스 사건 이전에는 세이프 하버 요구사항을 준수한 기업의 자체인증만으로도 핫라인 또는 내부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데이터의 전송 및 사용에 있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 내에서만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 문서 검토를 위해 데이터를 한 지역으로만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안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데이터 송출 전에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연합 프라이버시 기준 충족을 위해 고안되어 승인된 회사 내부 규정 및 절차인 정보보호사규(Corporate Binding Rules - CBR)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보호사규(CBR)의 공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수준에서 관리될 뿐이며, 승인을 위해서는 조사 착수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미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당장 준수하자

슈렘스 판결로 세이프 하버가 무효화되었지만, 이를 해결할 다양한 해법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세이프 하버 조항을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 이를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세이프 하버를 대체할 정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은 장래의 무역 협정에 대한 거부권으로 위협하고 있고, 2016년 1월까지 대안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보안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FCPA 준법감시를 위해 슈렘스 판결 안에서 주의하여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법무부

(DOJ)의 요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내 준법감시 전략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Sheppard Mullin 국제통상팀은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관련 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슈렘스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Eye on Privacy의 기사 <U.S. Safe Harbor Regime Invalidated by Europe's Highest Court>를 참고.

[2] 설상가상으로, 슈렘스 판결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데이터 보호 기관에게 데이터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제 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조사 및 중지 권한을 부여했다.